

## 7월 광주는 축제 물결... "점음을 즐기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한국 선수단 본진이 광주 서구 화정동 선수촌으로 들어오고 있다. 유병진 한국선수단장과 체조의 양학선 선수(사진 가운데) 등 선수단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U대회에 맞춰 K-POP 콘서트·물총축제 등 잇따라  
24일부터는 상무조각공원 인근서 판타지4 뮤직페스티벌

**D-1** 'K-POP, 물총 놀이, 피크닉, 도심 캠핑, 강연, DJ쇼...' 7월 광주가 즐겁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에 맞춰 인기 연예인과 스타 강사, 세계적인 DJ들이 광주를 찾는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다양한 장소에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문화행사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관련기사 2·3·7·14·20·22면〉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2015세계청년축제'는 4~12일 금남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무등-1 등 없는 콘서트'를 주제로 열리는 '홍분해도 괜찮아'(5일 오후 7시)는 가수 윤종신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준영 밴드, 김예림, 존박, 장미여관 등이 무대에 선다. 광주·대구·부산지역 청년 뮤지션 150개팀이 모두

100시간 동안 펼쳐는 미니콘서트도 만날 수 있다.

공연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융성위원장 김동호, 셰프 오세득, 역도선수 장미란, 코오롱 CEO 이수영 등이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또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작가들과 한국의 작가들이 만나는 라이브 페인팅 쇼 '그래피티 인 광주'가 행사기간에 열리고, 4~5일과 11~12일에는 문화전당 광장에서 도심 속 캠핑 행사가 펼쳐진다. 12일 세계청년축제 폐막 공연에는

가수 싸이가 무대에 선다.

도심 한복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물총축제가 열린다. 11일 오후 1~6시 금남로에서 펼쳐지는 '2015광주물총축제'는 '물총싸움', '에어바운스 수영장', '물총패션쇼', '물총패션 퍼레이드', '물난리 디제이파티', '광주·전남 대학 세력전'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광주U대회가 끝난 뒤에도 축제는 계속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9일까지 서구 상무조각공원 인근에서 열리는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페스티벌'(이하 판타지4광

주)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정상급 DJ와 랩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형 에어돔 복합 DJ공연장존', 'DJ 뮤직페스티벌', '푸드&치맥 페스티벌', 'DJ POOL 파티 수영장' 등 행사로 꾸며진다. 국내외 정상급 DJ 공연과 360도 영상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지는 에어돔 DJ 공연장이 판타지4광주의 하이라이트다. 600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에어돔 내·외부에는 화려한 영상쇼가 수놓아진다. 이하늘, 춘자, 이안, 남규리, 제국 의아이들 문준영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DJ 뮤직페스티벌'에는 DJ KOO(구준엽), 박재범, 도끼, 산이, DJ Ferry, DJ FENNER, MICRO KING, KADE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3면으로 계속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kki@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U대회 시작됐다... 성화 오늘 광주 입성·공식경기도**

광주 U대회가 사실상 시작됐다. 성화도 국내외를 돌고 돌아 광주로 입성했으며, 개막식 리허설과 실무 단체별 회의 등이 마무리되고, 2일부터는 공식 경기도 열린다.

1일 오후 7시부터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리허설에서는 식전행사, 문화행사, 선수단 입장, 환영사, 개회선언 등 실전과 같은 예행연습이 이뤄졌다.

선수촌에도 이날 하루만 한국 선수단 본단 등 1800여명이 추가 입촌했다. 한국 선수단 입촌식은 2일 오후 4시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본경기도 2일 오전 11시 축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배구·수구 경기 등이 열린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이날 오전 11시 영광스포티움축구장에서 대만과, 여자축구팀은 같은 시각 나주공설 운동장에서 체코와 경기를 펼친다. 남자배

구는 호주(오후 6시 염주종합체육관)와 여자배구는 중국(오후 3시 순천팔마체육관), 남자대표팀만 출전한 수구는 브라질(오후 8시 염주실내수영장)에서 맞붙는다.

이날 운전저수지에서는 성화 봉송 맞이 행사도 진행됐다. FISU는 이날 윤정현·김향식 광주 U대회 공동위원장에게 '베스트 페어플 레이싱'을 수여할 예정이다. '베스트 남녀선수'에는 러시아의 스케이트 선수인 크세니아 스톨보바(Ksenia Stolbova)와 페도르 클리모프(Fedor Klimov)가 선정됐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 "문화전당 직제·인원 축소 안 돼" 새정치, 당론으로 정해 대응 나서

박근혜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축소 움직임 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 방침 저지를"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표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광주 아시아 문화수도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이라 말로 박근혜 정부 들어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으로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승용 의원은 "광주시를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로 지역차별로 비화할 수 있으며 광주 시민과 호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분명하니깐 정부에서도 장관들이 기가 죽어 움츠러 들었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중덕 문화부장관이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전당에 대한 오해 발언은 청와대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전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사업이다. 이를 인정하는냐고 묻자, 김 장관이 '인정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전당이 민생과 직결되지 않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라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은 문화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 집의하자 김 장관은 '아시아문화전당을 폄하하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다. 문화전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임동욱·박지정기자 tuim@kwangju.co.kr



## "안녕? 우린 시아와 친구들이야"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여섯 캐릭터 첫 선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이 처음 선보였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일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문화원의 여섯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Sia&fam)을 공개했다.

시아(Sia)는 아시아(Asia)의 약어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문화를 탐구하는 어린이를 형상화했다. 나머지 다섯 친구들은 고니(Gonee), 페리(Paree), 칼리(Kalee), 엘리(Elee), 키니(Keynee)로 각각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한다. 이들은 각각 용, 앵무새, 자칼, 코끼리, 원숭이의 이미지를 캐릭터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어린이문화원은 '시아와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동화 등을 창작하는 등 대표 브랜드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들 캐릭터를 새긴 티셔츠, 인형, 교재 등 다양한 상품도 제작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우리가 먼저 웃고! 우리가 먼저 지키고!

# 선수는 열정 금메달, 시민은 질서 금메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7.3 ~ 7.14(12일간)

광주 U대회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